

건설사에 세대수 늘려주기...광주시 스스로 용적률 기준 깎다

중앙공원 특례사업, 심사편 엄격 적용 업체 선정 후 완화 한양·호반에만 특혜 집중...“건설사 배불려주기” 비난

술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표적이 된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가 '용적률'이라는 규제 장치를 이중 잣대로 적용해 건설사 배불려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일컫는 용적률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도심 스카이라인 등 경관이 마구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어 장치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게 건축물을 지어올릴 수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우선협상자(건설사) 선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가운데 12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용적률·건폐율에 부여했다가, 막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특혜의혹을 사면서까지 스스로 세우둔 원칙을 무너뜨리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주)한양 측이 공원 내 비공원 부지에 지을 아파트 규모를 기존 2104가구에서 2370가구로 266가구 늘려줬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은 기존 164.78%에서 199.80%로 35.02% 완화(상향)됐다. 한양 측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책정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 204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2000억원 안팎의 추가 매출이 생겨나는 셈이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주)호반건설 측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변경안도 받아들였다. 애초 178.3%였던 용적률은 205.7%로 완화됐고, 사업자 측은 아파트 94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주)한양과 (주)호반건설이 각각 아파트 266세대와 94세대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완화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가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채점·7개 항목 100점 만점)를 하면서 건폐율과 함께 용적률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계량평가 항목 4개 가운데 2번째로 높은 12점을 용적률·건폐율에 부여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제시해놓고,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는 특혜 의혹을 사면서까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공교롭게도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이익도 광주시 특정감사를 통해 우선협상자가 뒤바뀐 중앙공원 1·2지구에 집중된 것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업체 선정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때 업체 선정에 대한 채점표로 작용했던 용적률을 크게 완화해 준 것은 특혜 소지가 크다"며 "특히 일부 업체에만 용적률 완화 조치가 취해졌다면 더 큰 문제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여했던 한 고위 공직자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최초 제출했던 사업제안서가 일종의 계약서"라며 "금융 부담 증가를 하소연하는 업체 측 말만 듣고 비공원 시설 용적률을 완화한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으로 탈락업체 등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에게만 용적률 완화 조치가 취해진 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공통사항인 만큼 나머지 업체에도 분양가 상한 등 배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홍콩서 美 '홍콩 인권법안' 통과 촉구 집회 시위대, 성조기 흔들며 美에 홍콩 사태 개입 촉구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공식 회의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8일 홍콩 도심에서 열렸다. 이날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홍콩 인권민주주의 기도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초부터 이어져 온 14번째 주말 시위인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미국 의회가 논의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미 의원들에 의해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채 대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이들과 미국 기업 및 개인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십 개의 성조기를 흔들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Fight for freedom, Stand with Hong Kong)",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홍콩을 해방하고 우리의 헌법을 지켜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홍콩을 다시 위대하게(MAKE HONG KONG GREAT AGAIN)'이라고 쓴 모자를 쓴 사람도 눈에 띄었다.

한 홍콩이공대 졸업생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우리는 미국에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나온 것"이라며 "이는 홍콩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속한 홍콩 기본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완도 수목원·영광 칠산타워 추석연휴 무료 개방

추석 당일이나 연휴 기간,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나 수목원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수목원은 추석 연휴기간인 12~14일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완도수목원은 2033ha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수목원으로 동백, 황칠, 붉가시나무 등 770여종의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방문객들은 연휴 기간 산림전시관·산림박물관을 제외한 전문 소원, 아열대 온실, 난대림 탐방로 등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열대 온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식물로 공룡이 먹던 나무로 알려진 '올레미 소나무'를 볼 수 있다.

완도군의 장보고기념관도 추석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영광군도 추석 연휴를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칠산타워 전망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칠산타워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 규모의 전망대로, 추석 연휴를 맞아 칠산대교 임시개통과 맞물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형 강제입원' 사건관련 선거법 위반...이지사 "대법원에서 진실 밝힐 것"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리행사방해 혐의와 '김사 사창', '대장동 개발업적 과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의 영향으로 그의 정치적 미래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 지사 측은 재판결과와 관련해 "친형 강제입원"이 무죄임에도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대법원 선고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여비서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이 김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에서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 바 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이면 사건에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김씨는 씨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투자자 모심

- 전국 급매물/경매물건
-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률 - 연 20%이상
- 법적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무안군 동탄면 대항펜션

영산강 정 경관 최고 땅 48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에 적합. 휴게소도 적합. 32억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화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무안군 완남면 하오리 11607㎡ 투자에 좋은 농원 1억5천 매도 3억6천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71㎡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은 2억
- 시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지평동 대항건물 중 1층 264㎡ 현관실임 다용도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상가 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인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영암 혁신면 영산강집 산 97404㎡ 건평 8억4천 은행 등 5억8천 사할도 적합 3천만
- 오양시절 최고 영광 법선면 땅 5416㎡ 총 477㎡ 중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 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중 주거지 땅 4413㎡ 축전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호텔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